

가꾸고 보전해야

요즘은 과학문명이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각종 기기들이 앞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쁘게 지내오는 동안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린 것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몇 십년 전만 해도 우리 생활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있던 야생화나 들꽃들이 이제는 꽃박람회로 가서나 만나볼 수 있는 현실에 깜짝 놀라게 된다. 또한 집주변을 분주하게 드나들던 곤충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개발이라는 흐름에 밀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질서가 깨지면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됐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하다.

한번 망가진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원상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함께 엄청난 재정부담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와 함께 전문화, 분업화, 핵가족화의 그늘에 가려 전통으로 이어져오던 우리의 미풍양속도 상당부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릇된 황금만능사조가 팽배해지면서 가치개념의 왜곡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염려스럽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으며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자랑거리를 지니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1234년경에 간행된 상경고금예문은 실물이 없이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으며 1377년 흥덕사에서 제작된 직지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공인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하권 1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을 따름이다.

특히 국내 몇몇 박물관과 개인 소장자들이 활자에 관련된 희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인쇄업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한 곳이 한 곳도 없다.

국내인쇄업계의 사정이 어렵고 인쇄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이 열악한 원인이 있긴 했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다행히 올해에 인협이 문화관광부로부터 3억원의 지원을 받아 인쇄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국고 외에 인쇄업계의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인쇄역사문화관은 인쇄문화회관내에 활자전문 전시자료실로 꾸며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옛 활자를 복원하고 사라져가는 활자인쇄문화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활자전문 전시자료실이 마련되면 그 의의가 사뭇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협에서는 인쇄인 및 관련인사를 대상으로 인쇄관련 희귀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우리민족의 자랑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후세에 물려주는 과업에 주저함이 없이 힘을 실어 주어야겠다.

〈오세익 · 편집주간〉



올해에 인협이 문화관광부로부터 3억원의 지원을 받아 인쇄문화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옛 활자를 복원하고 사라져가는 활자인쇄문화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활자전문 전시자료실이 마련되면 그 의의가 사뭇 크다고 할 수 있다.